



# 대안가정

통권12호 (2006년 겨울/계간) [http : www.daeanhome.org](http://www.daeanhome.org)

- 2. 특집 / 대안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 4. 스케치 / 2006년 정기총회
- 6. 대안가정 일기(10가정 발췌)
- 11. 대안가정운동본부 방문기
- 12. 『해맑은 아이들의 집』설립기금 마련을 위한  
LOVE CONCERT
- 13. 상담원 수첩 /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 14. 상담현황 및 소식
- 15. 회비(후원) 내역 및 재정
- 16. 후원안내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핀/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06. 2. 20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4

## 대안가정운동본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대안가정운동본부의 주요시안을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고 결정하며 대안가정운동본부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이분들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계신 우리 임원진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이수형 이사장 / 공인회계사



우리 아이는 우리 손으로  
2006년에는 이땅의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대안가정운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대안가정식구들 화이팅!

배순균 이사 / 목사, 다혜네 대안가정 부



가만히 있다가도 대안가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왜 그럴까? 내가 대안가정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한 식구라고 생각하는데, '食口, 음식을 같이 먹는 입'이라는 뜻처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좋겠죠?! 올해도 더 많은 식구가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모든 대안가정 가족들에게 웃음과 행복이 넘쳐 나기를 기도합니다.

우극현 이사 / 구미순천향병원 산업의학과 교수



행복한 가정이 그 무엇보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 세대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위를 돌아보며 위기를 겪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돌봄으로 인간 사랑을 실천하고자 계신 대안가정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크신 은총이 늘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배성우 이사 /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병술년 새해, '한 가정에서 한 아이를 보살핀다면...'이라는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 날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올해에도 회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대안가정 가족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송광익 이사 / 늘푸른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애쓰신 만큼의 흐뭇한 보람이 열리고 꿈꾸시는 만큼의 환한 기쁨으로 충만하소서~  
좋은 복 많이 많이 지으시고 더 큰 복 듬뿍 듬뿍 거두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으로 참으로 넉넉한 새해 새날이시기를!

은재식 이사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사회전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아동의 삶을 송두리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가 단순한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아동의 상처를 치유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인권단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가정운동본부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니다.

**이왕욱 이사 / 나눔공동체 대표**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고 동시에 느껴야하며 마침내 행동해야 합니다. 성서에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우리 아이들이 친부모에 버금가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정영숙 이사 / 독어독문학 강사**



대안가정 어머니들께 항상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제게는 태산을 움직이는 일이에요.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세요.

**우병길 감사 / 왜관순심여고 교사**



대/안/가/정/운/동/본/부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는 몸도 마음도 더욱 건강하세요.  
여전히 유효한 좋은, 이웃, 사랑, 손길, 따뜻, 기쁨, 공동체, 날개, 희망, 봉사, 나눔..!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태원 이사 / 대구협성고교 교사**



매섭던 찬바람이 이젠 기운이 부치나 봅니다. 더러는 푸근한 바람이 불기도 하네요. 곧 죽은 듯 고요하던 저기 나뭇가지에도 푸른색이 돋겠지요. 여기 절대로 꺾여서는 안 될 소중한 싹들이 있습니다. 무성한 숲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씩 조금씩 찬 바람을 막아줍시다.

**권오걸 감사 / 경북대 법학과 교수**



병술년 한해!  
운수대통, 만사형통, 일취월장 하십시오

**이국진 / 자문위원 사회복지 공무원**



“知之者는 不如好之者 요, 好之者는 不如樂之者 란(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현실을 두려워하거나 벗어나려 하지 말고 논리와 참여를 앞세우지 않고 나눔과 고민을 즐기며 함께하는 대안가족운동본부의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모든 이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 외에도 김규원(이사,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이병희(이사, 변호사), 고석(자문위원, 사회복지공무원), 박선아(자문위원, 변호사), 박혜인(자문위원,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종미(자문위원, PET 강사), 정현수(자문위원, 변호사), 고건상(고문, 왜관 약목성당 주임 신부)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 2006년 대안가정운동본부 정기총회

2006년 대안가정운동본부 정기총회가 2006년 2월 9일(목) 영남별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7시부터 자유롭게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8시 30분부터 총회를 시작하여 2005년 사업 및 재정보고와 2006년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개정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에 비해 조촐하게 진행되었지만, 대구·경북 각지에서 많은 대안가정 가족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해원이네 대안가정 엄마와 가을이 두 가정은 이웃에 사는데, 아이들이 같은 또래라 더 친하답니다!



▲ 대안가정 소개 중! 온가족이 총출동한 해원이네



▲ 대안가정 소개 중! 경북 상주에서 달려오신 성민이네



▲ 금강산도 식후경! 회의 시작 전에 식사교제를 나눕니다



▲ 이수형 이사장의 개회사로 총회 시작! 벽에는 현수막 대신 경제적(?)인 벽보를!



▲ 지루해진 아이들이 모두 밖으로 빠져나가고 어른들은 진지하게 회의를 이어갑니다



▲ 엄마와 단정하게 자리를 지키는 혜윤이. 혜윤이네는 지난 연말부터 대안가정 대열에 합류하셨습니다.



▲ 대안가정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힘쓰자는 의견에 모두 공감하십니다.



▲ 9시 반이 넘어서야 회의를 마쳤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It's new - 2006년 주목할 사업!

### ① 대안가정 아동의 가정위탁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우리는 대안가정 가족이에요!'

위탁아동과 대안가정 친자녀에게 대안가정이 건강한 가족의 한 형태라는 것과 가정위탁상황에 대해 바람직하게 이해하도록 지원하여 심리·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적응을 이루도록 하기위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 사업기간 : 2월부터 12월까지 (5월 작은 캠프, 8월 큰캠프, 10월 가족나들이)
- 본 사업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 ② 대안가정 부모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조모임과 부모교육을 하나로 묶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기존의 일상적인 양육 문제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위탁상황에 대한 아동과의 대화법, 성교육, 아동 심리이해' 등 구체적인 주제로 깊이있는 교육을 가질 예정입니다. 똑같은 교육내용을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각각 1회씩 실시합니다.

- 사업기간 : 2월부터 9월까지
- 본 사업은 공익포털사이트 『해피빈』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 ③ 심포지엄 '한국의 대안양육 현황과 과제'

가정위탁과 함께 입양,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등 한국의 대안양육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연계와 협력을 통해 아동우선주의에 입각한 아동보호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 6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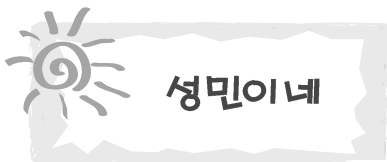
**2005. 12. 21 / 민이와 진이의 요즘생활**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얼마 전 대안가정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신세대 엄마가 아니어서 컴퓨터가 익숙지가 않아서요. 첫눈이 내립니다. 아마 개구쟁이 진이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명랑, 쾌활 그 자체인 진이는 요즘 부루마블 게임에 흠뻑 빠져있습니다. 그러니 집이 좀 조용해지네요. 늘 방안에서 언니 민이랑 땅을 사고 호텔을 짓고 뭐 그러면서 노네요. 그렇게 재미있나봐요. 민이는 며칠 전 학교에서 글짓기 상을 받아왔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게요.

**2005. 12. 26 / 겨울 방학의 시작**

아이들이 고대하던 크리스마스를 떠들썩하게 보냈

다. 진이는 강아지를 참 좋아한다. 지나가다가도 강아지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너무 좋아해서 한때 백설이라는 강아지를 키운적이 있는데 우리와 인연이 아니었는지 너무 시끄럽게 짖어대서 시골집에 데려다 놓아야만했다. 그런 아쉬움에서였을까? 진이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강아지 인형을 사달라고 했다. 살아있는 강아지는 아니었지만 좀 더 생동감을 느끼게 해 주고 싶어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꼬리를 흔들면서 짖고, 새끼 강아지에게 젖을 물리면 멍멍 짖는 살아있는 것 같은 귀여운 강아지를 선물해 주었다. 반응은 기대이상~ 진이는 이 강아지를 백설이라 부르기로 했다. 사춘기 소녀인 민이는 mp3... 좋아하는 음악 몇 곡 들으며 감성 풍부한 소녀로 자라나길... 내친 김에 영화도 한편! 아이들이 좋아하는 해리포터로! 내일부터 아이들의 겨울방학이 시작된다. 잠꾸러기 진이와 민이. 이제 맘껏 늦잠자고 집에서 똥굴똥굴할 수 있다고 좋아라 야단이다. 하지만 마냥 그렇게만은 안될 걸~ 겨울방학을 좀 더 알차게 보내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향상된 민이와 진이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오늘부터 우리집은 비상이다!



**2005. 11. 27 / 성민이의 생일잔치**

[^\_^]오늘은 성민이의 5번째 맞이하는 생일이 랍니다. 할머니께서 성민이를 위해 성민이가 좋아 하는 맛있는 떡을 해주시고 그동안 오지 못하던 둘째누나가 성민이를 만나려고 시간을 내어 내려왔습니다. 성민이가 기분이 좋아 어찌할 줄 모릅니다.(^o^)(^o^) 오후에는 고모집에서 큰고모네가족 작은고모가족 또 할머니들이랑 함께 큰고모가 사오신 케익에 촛불을 키고 10명의 어른이 생일 축하해주니 성민이의 말할 수 없는 행복한 표정 필름에 담지 못한 아쉬움. 생일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큰아빠 케익 사가지고 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큰아빠 생일 축하^o^

**2006. 1. 11 / 성민이의 실수때문에**

일곱살되었다고 좋아 하던 성민 하지만 사흘이 멀다하고 오줌을 옷에다 싸는 바람에 내의가 모자랄 정도... 그래서 혼을 내려고 하니 울기만 하고 잘못 하였다고 용서를 빌지 않는다. 보다 못한 큰아빠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안 싸겠다고 빌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성민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다. 큰아빠 때문에 용서 해주었더니 다음 날 또 실수... 조용하던 우리집 성민이 때문에 매일 시끌시끌하다. 방학이 되어 내려온 둘째누나 왈, "우리집 많이 변했어~" 특히 우리 아빠 더 많이 변했다.



혜원이네

2005. 12. 13 / 혜원이 아빠~

잘 지내시고 계시죠? 보내주신 것 잘 받았 습니다. 감사하구요. 혜원은 요즘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갈수록 이 빠지구요, 너무 걱정마시고요. 추운데 건강조심하세요~ 혜원이 어린이집도 잘 다니고 있어요. 다닌지 얼마 안돼 서 벌써 대장노릇하고 다닌다고 선생 님께서 그러시던데요? 말도 많이 늘었 지만 아직 기저귀는 못땀어요. -o-;;

2005. 12. 20 / 어린이집에서



사랑의 노트 라고요. 혜원이가 다니는 어린이 집 에서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일종의 가정통신문이 있거 든요. 잘 읽어보시면 혜원이가 풀잎반 대장이란 것도 써있을꺼예요^^

「사랑의 노트 - 어린이집에서 생활평가」

안녕하세요. 혜원이라랑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혜원은 한주동안 잘 보냈답니다. 혜원이 가 풀잎반 대장이예요\*^^\* 모든 언니, 오빠들을 다 이겨요. 혜원이가 원하는 물건은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달라고 떼쓰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럴때마다 사이좋게 가지고 놀아야 하며, 때리고 싸우면 미운 친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적응이 되어 어린이집이 편한지 낮잠도 자고 울지 도 않고 신나게 놀아서 저도 기분이 좋 네요.



민교네

2005. 12. 6 / 겨울바람이 많이 차죠??

하루가 어찌 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네요. 바쁜 엄 마를 따라다니느라 민교도 덩달아 바쁘답니다. 그래서 민교는 콧물이 마를 날이 없네요. 줄줄... 엄마 맞 나?? 근데 나가는 걸 넘 좋아해요. 제가 버릇 잘못 들었나 봐요. 날씨가 너무 매서워 마트에 가서 폴라 폴리스로 된 상하복과 두꺼운 스키바지를 사줬답니 다. 참 부끄도요. 그 부츠를 집에서 신고 다닌답니다. 그러다 광 넘어져 이마에 멍이 들고 말았답니다. 하얀 얼굴이라 멍이 너무 선명해보입니다. 그래서 부츠 를 치우기로 했답니다. 1월에 스키장에 갈 예정인데 민교가 넘 좋아할 것 같네요. 민교 덕분에(?) 엄만 스 키도 못 타겠지만 요즘은 민교 즐거워하는 모습이 좋 아서 뭐든 신난답니다. 그래서 외출을 자주하게 된다 는 핑계도 생기구요. 근데 민교가 너무 얌전해서 어 디 데리고 나가도 수월해서 제가 편하답니다. 저번 주는 언니야들이 감기에 걸려 일주일 집에 있는 관계 로 엄마가 쌍코피 터질 뻔 했습시다. 다행히 언냐들

은 유치원에 가게 되었구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 기 조심하시구요. 저도 민교 열췌미 키우겠습니다.

2006. 1. 3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들 잘 지내시죠? 새해가 밝았네요. 30대가 넘 으니 이제 새해도 그다지 반갑지가 않습니다. 민교는 나날이 말이 얼마나 느는지... 언니 말은 다 따라하려 합니다. 언니보고 “야”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웃긴지... 딸기보고도 “딸기야”하고, 하루 종일 종알 종알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얼굴은 심 각했다가 웃었다가... 모두 뜻이 있어 그러겠죠. 민교 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 읽어주면 옆에서 가 만히 책만 들여다 봅니다. 민교개월의 아이들은 흔히 엄마가 책을 읽으면 다른곳을 쳐다보는데 유심히 집 중력있게 듣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집중력이 있 는 것 같아 나중에 공부를 아주 잘할 것 같은 예감이 팍팍 듭니다. 저번 크리스마스 나들이때 친구들이 보 고 이렇게 차분하고 얌전한 얘기는 처음 봤다고 다들 칭찬해줬습니다. 이렇게 민교가 너무 이쁘게 벌써 두 달이 지나 세 달째 접어들고 있네요. 욕심이 나서 “민교 우리말 하면 안될까?”하고 아빠에게 물어보면 “진짜 그럴까?”합니다. 둘 보다는 셋에 더 익숙해진 엄마의 바람입니다.



대현이네

2006. 1. 6 / 새해 첫날 출타

대현이가 2006년 새해 첫날 아침에 새벽 산 눈썰매장에 갔습니다. 눈썰매는 아직 혼자서 타기가 어렵네요. 결국 아빠랑 함께 신나게 뒀습니다. 신나는 하루 보내었습니다. 오늘처럼 일년이 신나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안 가정 가족 여러분들도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6. 1. 10 / 나 아가때?

요즘 우리 대현이는 궁금한 게 넘 많은가

보다. 누나랑 찍은 사진을 보며, “왜 나는 없냐. 엄마 아빠 나빠”라며 삐진다. “엄마 나 아기 때는 어떡했어, 엄마는 그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 등등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엄마 지금 나 넘 넘 행복해”라고 말한다. 이런 소리 들을 때 가슴이 찡함을 느낀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두 딸 아이 키울 때는 들어 보지 못한 질문을 들을 때에 마땅히 해줄 말이 없어 당황스러워진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혹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거나 않을까 하는 마음이 늘 부담스럽다. 아이가 성장 할수록 부모 노릇 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애타운 대현이가 늘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 합니다.



아란이네

2005. 12. 8 / 예방접종

아침 일찍 나래를 학교에 내려주고 아란이와 병원에 갔다 왔어요. 진찰할 땐 웃기도하고 웅얼이도 하더니 주사 맞는 것을 아는지 우렁찬 목소리로 반응하더군요. 예방접종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약 먹고 잠이 들었어요. 이달 초부터 제가 많이 바뻐어요. 우리집 두 아이가 잠시 멀리 가는 바람에 준비해서, 데려다 주고 왔거든요. 며칠간 할머니께서 봐 주셨어요. 아무튼 큰 아픔없이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5. 12. 22 / 아란이 진료 잘 받았습니다

얼마 전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심장소리가 심상치 않으니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얻은 아란이. 오늘 상인동 한창호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아란이는 ‘심방중격결손’이라는 질환으로 선천적으로 좌우 심방사이에 구멍이 난 상태인데 현재는 자연히 구멍이 조금 좁아진 상태라

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구멍이 잘 막힐 수도 있으니 돌까지 경과를 지켜보고 이후에 만약 더 이상 구멍이 좁아지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고 심장 질환 중에서는 위험이 적은 병으로 아란이가 생활하거나 발육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야 했는데 원래는 아기들은 울거나 움직이거나 해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야 검사를 하는데 우리 아란이는 5분 정도 검사를 하는 동안에 순하게 잘 협조(?)해 주어서 의사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답니다^^;; 부디 아란이가 돌때까지 튼튼하게 심장에 난 그 구멍을 잘 막아서 수술은 받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검사를 모두 지원해주신 한창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2006. 1. 24 /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안가정의 가족 모두에게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란이의 이가 제법 커졌습니다. 콧물도 조금 나고 기침도 하긴 하지만 다 크는 과정. 요즘은 잠이 많이 줄어서 짝잠 자요. 반대로 저는 잠이 부족하답니다. 그런데도 살은 빠지지 않고 붓네요. 아니 찢건가? 아무튼 추운 날씨속에서도 건강을 지키시길...



**2005. 11. 23 / 얘 너무 찡하잖아!**

별써 예진이와 한 숯밥 먹은 지도 1년이 다가오네요. 지난주에 생일을 맞이하였구요. 웬지 가슴이 찡하게 저며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선 교회 친구들과하고 1차 파티를 가졌습니다. 친구들이 생일선물로 뽀뽀하는데 너무 리얼합니다. ㅋㅋ 옆에 관객(?)들 '부러버라' 하고... 예진이 표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진이 지금 2차 생일파티(어린이집)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고집이 늘었다고 선생님이 걱정입니다. 고집만 빼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005. 12. 23 / 감사해요**

엣그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벌써 일년이 지났네요. 어제 도착한 선물바구니를 보니 세월이 빠르다는 걸 실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얀 눈

이 세상을 밝혀주세요. 폭설로 인해 많은 염려가 있는데 사무실 모든 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언니들 더욱 예뻐지세요.

예진이가 온지도 훌쩍 1년이 지난 것이 실감나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집은 아침이면 빨리 빨리 소리가 끊기질 않는답니다. 예진이는 세월아 네월아 마냥입니다. 다른 집도 그런지 ㅎㅎㅎ 예진이 엄마 아빠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두 분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모두 행복한 날을 꿈꾸며...

**2006. 1. 23 / 신나는 눈썰매장**

오랜만에 이모 식구들이 와서 예진이는 신이 났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더 신이 났구면요. ㅎㅎㅎ 나중엔 신이 나서 또 타고 또 타고. 타고 내려올 땐 좋지만, 썰매 끌고 올라가는 게 더 운동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역시 눈썰매에 빠질 수 없는 건, 5명 국물이죠. 이모 딸 먹는 폼 못 말려~ 예진이도 오물오물, "어~ 뜨거~" 눈에 선하죠? 부러우면 여기로 다 놀러와요.



**2005. 12. 5 / 사랑은 변하는거야**

우리 어진이 예원이 짝 사랑이 끝이 났는가 보다. 어린이 집에 진이라는 아이가 들어왔는데 아주 예쁘단다. 예원보다 예쁘단다. 예원이가 지 옆에 안 앉는다고 속상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없다. 진아가 예원이 보다 더 좋다고 한다. 짓궂은 엄마 친구가 어진이 보고 "진아 손 잡아 봤어?? 진아랑 뽀뽀 해봤어??" 하고 물었더니 손도 못 잡고 뽀뽀도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진아가 예원이 보다 좋다고 한다. 그래 사랑은 변하는거라며. 어떤 CF에 의하면... 그런데 어진아 너무 쉽게 변하는 것 같애.



**2006. 1. 9 / 역시 형아..**

종민이가 일주일정도 머물다 갔다. 어진이는 형아가 너무 좋아서 전화소리에 형아 목소리만 나오면 깔깔대고 웃는다.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이번엔 별로 싸우지도 않고 잘 놀았다. 어진이 생각에 종민이 형아는 거의 우상에 가깝다. 자기가 못하는 걸 형아가 하면 어진이 왓, "역시 형아야" 한다. 요즘 아빠 시간이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공룡 박물관도 가고 로봇 박물관도 다녀왔다. 어진이는 공룡에 관심이 많아서 웬만한 공룡의 종류는 다 안다. 뭘 놈의 사우르스가 그리도 많은지... 로봇 박물관에서 3차원이기 4차원인가 하는 입체 영화를 보았는데 어진이가 너무 무서워했다. 오늘 어진이가 잠들어 있는 아침에 형아가 가버렸다. 우리 어진이 형아 갔다고 한참 속상해 했다. 여름 방학에 다시 만나자.



다혜네

2006. 1. 8 / 얼마나 잘 노는지

정말 우스워요. 혼자서 블록 쌓아 놀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간식을 먹다가 흘러서 지저분하면 빗자루를 가져다가 쓸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엄마 아빠도 찾지 않고 혼자서 어쩔 그렇게 잘 놀아요? 언니랑 오빠가 없어서 심심해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이 났어요. 아마도 언니 오빠의 잔소리(?)가 없으니 오히려 스스로 잘 하는가 봐요. 남편과 나는 이런 다혜의 모습에 자꾸만 킁킁 웃음이 나서 서로 보고 웃는답니다. 지금도 비디오 한편 보면서 꿈쩍도 않고 앉아있지요. 어유... 어유... 귀여워... 정말^^



2006. 1. 23 / 울었어요^^

셋째가 다혜로 인해 심한 말을 하더군요~ 가슴이

막 아파오는 거 있죠. 셋째를 데리고 앉아서 다혜가 왜 우리집에 왔는지, 왜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엄마 아빠가 다혜보다 당연히 언니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혜 진짜엄마의 마음, 엄마도 진짜엄마로서의 고충, 우리가족으로 다혜를 사랑하자는 말들.. 한참을 이야기 하면서 눈물이 주무룩 흘러 내렸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다혜가 이해되어서 가슴이 아팠고 셋째가 이해되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참을 셋째와 부둥켜 울고 나니 큰아이도 둘째도 껴억 껴억 울고 있더군요. “너희들은 왜 우니?”, “엄마 이야기 들으니 가슴이 아파서..” 아이 셋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다혜도 멋도 모르고 같이 울더군요. 한바탕 울고 나서 어떻게 되었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하 호호^^ 대안가정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혜 엄마가 쫌 능숙하지 못하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이해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부끄러운 모습 드러내놓았습니다. 나와 나의 어린 아이들이 좀 더 큰마음을 갖게 되길 바라봅니다.

2005. 12. 8 / 혜진이와 입양을 이야기 하다

지난주 MBC 작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다양한 대안가정을 보여주고 싶는데 우리 가정을 촬영할 수 있느냐고... 저녁에 아이들과 촬영에 관해 이야기를 좀 나누었다. 유현이는 방송시간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라고 하자 괜찮다고 했고 혜진이는 처음부터 좋다고 했다. 시간이 안 맞아서 이번에는 촬영을 안하기로 했다고 마무리를 하고나서 조금 진도를 나가봤다. 만약 엄마가 혜진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입양교육을 할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하자 역시 괜찮다고 한다. 혜진이 이야기해도 되냐고 묻자 그것도 괜찮단다. 그런데 친구들이 궁금한 점을 혜진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잘 대답해줄 수 있느냐고 하자 불편해 한다. 혜진이는 입양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자신이 주목받거나 드러나는 것에는 불편함을 느낀다. 입양이어서가 아니라 입양으로 인해 주목받는 게 싫은 거 같다. 조금 더 크면 변할까?

2005. 12. 29 / 혜성아! 그러는 거 아니지...



해뜨는집

요즘 혜성이가 껴가 많이 늘었다. 아침 단잠에 빠진 엄마를 발뺌 일어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그건 바로 “맘마!”를 외치는 것. “맘마, 어뽀뽀!” 하면서 등에 매달리면 자동적으로 일어나 분유를 타게 된다. 근데 요즘이 배고파서가 아니라 오로지 엄마랑 놀고 싶어서 “맘마!”를 외치는 일이 잦다. 며칠 전에는 안되겠다 싶어서 “네가 달라고 했으니깐 맘마 먹어야 돼!” 하면서 안먹겠다고 도리질을 치는 혜성이와 씨름을 했다. 얼마나 울어대는지... 제편엔 힘들었을게다. 혜진이가 달래면서 “혜성아! 맘마 먹어야지” 하자 서럽게 울면서 혜진이 무릎에 엎어진다. 혜성이가 무슨 짓을 해도 귀엽기만 혜진이 왓, “혜성아 니가 이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너 그러는거 아니지...” 얼마나 우습든지...

## 우리복지시민연합 잇침, 대안가정운동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과 한 건물에 있는 대안가정운동본부이지만 우리복지 시민연합에 출입은 하면서도 대안가정운동본부가 대안가정에 대한 곳이라니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기관방문을 통해 어떤일을 하는 곳인지 알게 되었다. 정민경 팀장님과 김명희 국장님이 본부사업에 대해 설명하신 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 “대안가정일기모음집 읽고 독후감 쓸 것!” 한창 이리저리한 리포트 때문에 바쁠 때라 170페이지 분량이라는 말쯤에 ‘하...’ 싶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첫 페이지를 읽는데 울컥 했다. 글에 담긴 情이 느껴져서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실습생  
박재홍(경북대 사회복지학과)

대안가정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안가정 부모님, 친부모님, 상담원들의 글.. 놀라웠던 것은 차가운 기술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렇게 따뜻하게 쓰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대안가정으로의 첫걸음, 적응하기, 친부모님 만나기, 마음 놓기, 대안가정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그래도 아이들이라 어쩔 수 없이 친부모님 그리워하기, 그럼에도 잘 자라기, 그렇지만 헤어짐. 그리고 남은 대안가정 엄마, 아빠의 아이들 그리워하기...

한 번은 TV에서 입양가기 전의 아기들을 잠깐 맡아 기르는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줬는데 아기를 보내면서 우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어쩌면 저렇게 자신에게 잔인하기까지 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별이 너무 아파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나의 이야기에 국장님은 “그건 그 가정의 입장에서만 보았기 때문이다. 아기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야” 하셨다.

오래전부터 가족의 위기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어왔다. 그 만큼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가족이 위태롭기 때문일 것이다. 대안가정운동본부와 회원들이 그래서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 분들에게서 기쁨과 슬픔,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이웃’이라는 따뜻한 이름을 드리고 싶다.

### 대안가정 일기모음집 『우리집은 대안가정이에요!』 출간



대안가정운동본부 홈페이지에는 각 가정마다 ‘대안가정일기’를 기록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기를 통해 대안가정의 일상을 오픈하는 것은 무엇보다 아이를 보내놓고 그리워할 친부모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기의 주된 기록자는 대안가정 부모님이고, 주요 독자는 친부모님입니다.

대안가정의 소소한 일상 속, 잔잔한 감동을 담은 『우리집은 대안가정이에요!』는 16가정의 대안가정일기를 모아 만든 책입니다.

나도 가정이 필요해요!

대안가정 『해맑은 아이들의 집』 설립을 위한

# LOVE CONCERT

대안가정 『해맑은 아이들의 집』은  
친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입니다.


## 출연진

장인환(사회) / 이간따띠 남성앙상블 / 벨레스텔레 여성중창단  
김정화(Violin), 강석진(Viola), 김정석(Cello), 박주향(Piano) / 대안가정 가족  
\* 홍보대사 박미경(가수) 참석






일시 : 2006. 4. 11(화) PM 7:30      장소 : 대구시민회관 대공연장

입장권 : 10,000원      문의 : (053) 628-2592

주최 :  사단법인 대안가정운동본부 (<http://www.daeanhome.org>)

후원 :  대구대학교    영인전문대학    DEBEC    TCN 대구방송 · 대구케이블방송    每日新聞社   영남일보

대구MBC   CBS 기독교대구방송    BC 대구평화방송    PN [www.pn.or.kr](http://www.pn.or.kr)   평화뉴스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 대중교통이나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주세요.

## 또 하나의 대안가정 『해맑은 아이들의 집』

### 『해맑은 아이들의 집』은

친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입니다.  
5명 내외의 아동과 아이들을 보살피는 선생님이 함께 꾸러가는 또 하나의 대안가정입니다.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는 함께 공유하는 추억이 있고, 세월을 함께하며 만들어가는 가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는 친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 LOVE CONCERT 수익금 전액은 대안가정 『해맑은 아이들의 집』 설립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먼저 마음을 주시고, 마음이 향하는 만큼 아래방법으로 참여해주세요.

- ① 입장권 구입 : 1만원
- ② 정기후원 : 월5천원 이상 자동이체
- ③ 십시일반 일시후원
- ④ 주택미련기금 빌려주기 : 50만원 이상

후원계좌 : 대구은행 140-10-000273

예금주 :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입장권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세요.

· 상담원 수첩 ·

##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장효점 상담원

7살 성민이는 친가정 이야기만 하면 회피하거나 부정하고 싶어하는 행동을 보여 이번 설 연휴는 친엄마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의 연락을 받은 엄마는 “연휴에도 출근해야 하는데...”라며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엄마는 성민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가난과 싸우느라 휴일도 없이 일을 하신답니다. 결국 상담원이 상황의 심각성과 이번 만남의 중요함에 대해 설명하며 설득한 끝에 엄마는 연휴동안 직장을 쉬기로 하셨습니다. 덕분에 성민이는 친가정에서 더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갈 수 있었지요.

대부분의 위탁아동들은 한바탕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합니다. 친가정과 대안가정을 동시에 사랑하면 안 될 것만 같고... 친가정이 좋지만 대안가정에서 받는 사랑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을

몸으로 마음으로 겪어내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겪는 감정의 어려움은 때때로 어른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성민이의 경우 엄마가 상담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지만, 간혹 아이 마음속의 폭풍을 어리광쯤으로 가뻐이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친가정으로 귀가할 때, 이미 대안가정에 익숙해있는 아이에게 또다시 가정이 바뀌는 일은 큰 충격일 수 있으니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른들은 종종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요.

한결같이 절박하고 힘겨운 상황에 쫓겨 대안가정을 찾게 된 친부모님들. 본인 인생의 무게도 감당하기 힘든 분들께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길 바라는 것이 어찌면 조금 사치스런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작은 아이를 대신해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라구요.

## ■ 상담현황 ( 2005년 4/4분기 )

### □ 상담내용별 현황

상담 내 용 별 월	아동 위탁상담			대안가정상담		지원 상담			기타	계	아동-친부모 만남	신규 신정 가정	신규 의뢰 아동
	아동위탁 위탁상담	친부모 상담	대안가정 신청상담	양육 상담	행정	주치의	타기관 연계						
10월	15	10	18	16	6	3	14	6	88	1	4	3	
11월	14	6	13	26	21	1	4	2	87	-	5	3	
12월	6	9	5	23	6	4	-	9	62	1	1	1	
분기계	35	25	36	65	33	8	18	17	237	2	10	7	

### □ 상담유형별 현황

월	상담 내 용 별	전화상담	웹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기타상담	계
10월		76	3	1	8	-	88
11월		76	2	2	7	-	87
12월		54	4	2	2	-	62
분기계		206	9	5	17	-	237

## ■ 본부소식

• 대안가정일기모음집 『우리집은 대안가정이예요!』 발간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안가정일기를 모아 책으로 발간  
했습니다. 대안가정부모님과 친부모님들의 사랑과 눈  
물, 가족애로 채워진 이 소중한 자료가 대안가정운동  
이 널리 확산되는데 좋은 매개체가 되길 바랍니다.

• 해피빈 『몰래산타』 아동선물지원,  
『공익단체활동지원사업 - 콩세알』 선정

공익포털 사이트 해피빈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몰래산타』라는 프로그램으로 만5세 이상 아이들 다  
섯명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원 받았습니다. 『공익단  
체활동지원사업 - 콩세알』에서는 대안가정부모를 위  
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사업비와 디지털 복합기를  
지원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신청사업』 선정  
프로포절 공모사업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06년  
배분신청사업에 대안가정아동의 가정위탁 이해를 위  
한 교육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  
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기이사회  
12월 4일과 2월 1일, 정기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아동  
그룹홈 등 주요사업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와 함께 지  
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자리였습니다.

• 2006년 정기총회  
2월 9일, 대구 영남별장에서 2006년 정기총회를 가졌  
습니다. 정기총회는 대안가정운동본부의 주요의사결  
정을 위한 회의인 동시에 반가운 회원님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올해도 회원 여러분들과 대안가  
정 가족들을 모시고 정겨운 교제를 가졌습니다.

## ■ 아이들 소식

• 병산(7세, 남) 대안가정을 찾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맡겨져 지금까지 자라온 병  
산이는 엄마와 연락이 끊긴지 오래됐지만, 단독호주라  
법적인 가족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병산이에게는  
실제 어머니 다름없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본부의 도  
움을 받아 병산이를 가정위탁보호 하하기로 결정 했  
습니다. 병산이네 많이 응원해주세요!

• 성민(7세, 남) 엄마와 설 명절을 보내고 왔습니다  
성민이가 설 명절을 맞이해 친가정에 다녀왔습니다.  
늘 휴일도 없이 일하는 엄마지만 이번에는 성민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해주셨습니다. 할머니도  
뵈고, 이모댁에도 다녀왔는데 성민이에게 좋은 만남이  
었기를 바랍니다.

• 동진(9세, 남) 아빠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아빠를 만났던 동진이. 1년여만에 아빠  
를 다시 만나 주말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운 아빠는 동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동진이와 아빠, 그리고 곁에서 지킴목이 되어주시는  
대안가정 가족들을 향해 파이팅을 외칩니다.

## ■ 외부행사

• 해피빈 『해피로그 관리자교육』 강의  
2월 21일, 해피빈 사무국에서 주최하는 『해피로그 관  
리자 교육』에 김명희 사무국장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해피로그는 공익단체들의 홍보와 모금을 위한 블로그  
인데, 이번 교육은 신규로 개설한 해피로그 관리자들  
을 위한 자리입니다. 대안가정 해피로그의 우수(?)한  
운영성과를 인정받아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노하우  
전수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 『전국 아동복지 담당공무원 및 기관관계자 연찬회』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수안보 한화콘도에서 열린  
『전국 아동복지 담당공무원 및 기관관계자 연찬회』에  
김명희 사무국장이 참석 했습니다. 여러 관계자들과  
아동복지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뜻있는 자리였습니다.

### ■ 4/4분기 회비 및 후원 내역

(2005년 10월~12월)

이사회비		회비		후원회원 회비	
김규원	90,000	김호근	15,000	김중환	30,000
김백순	90,000	김환준	30,000	배재성	50,000
송광의	240,000	김효선	60,000	이동춘	15,000
우재현	90,000	김휘동	30,000	이마트단체지원	40,910
메리츠	120,000	김희준	40,000	이재은, 이다은	106,000
이병희	150,000	네버랜드	40,000	조인숙	100,000
이수현	1,000,000	동진산업	60,000	유일리축제공급	70,330
이왕욱	90,000	대구보상서비스센터	360,000	해피빈 10월	160,274
이태원	150,000	문우경	30,000	해피빈 11월	36,000
정영숙	90,000	반순리	30,000	해피빈 12월	24,000
		박기동	60,000	홍현숙	30,000
		박만근	10,000		
		박만민	20,000		
		박문용	30,000		
		박마연	30,000		
		박성천	30,000		
		박순우	30,000		
		박시우	30,000		
		박신영	30,000		
		박연남	30,000		
		박유숙	30,000		
		박임순	30,000		
		박임진	30,000		
		박정호	60,000		
		박혜숙	90,000		
		박복남	10,000		
		박성훈	10,000		
		배정환	30,000		
		배태수	60,000		
		백승희	30,000		
		백민정	5,000		
		백영주	60,000		
		변숙	30,000		
		서정진	40,000		
		서진현	150,000		
		서효석	30,000		
		순병혁	5,000		
		순성라	30,000		
		송계수	30,000		
		송창섭	30,000		
		신은정	30,000		
		신정원	30,000		
		심영민	15,000		
		안인진	150,000		
		안정선	30,000		
		양미경	60,000		
		양원희	30,000		
		양정화	30,000		
		양창근	20,000		
		오수환	30,000		
		오찬환	60,000		
		오찬진	20,000		
		오태동	100,000		
		오상진	30,000		
		김상진	15,000		
		김수진	30,000		
		김수득	30,000		
		김영태	30,000		
		김영원	40,000		
		김영원	30,000		
		김원석	90,000		
		김원석	30,000		
		김원석	10,000		
		김유라	20,000		
		김의룡	30,000		
		김재수	30,000		
		김제덕	60,000		
		김종오	60,000		
		김현영	20,000		
		김현영	15,000		
		김진석	30,000		
		김진석	30,000		
		김진규	10,000		
		김초자	10,000		
		김하수	30,000		

### ■ 4/4분기 재정보고

(2005년 10월~12월)

세입		세출	
관항목	결산액	관항목	결산액
회비	10,930,000	사무비	9,873,070
회비	10,930,000	인건비	8,905,680
이사회비	2,800,000	급여	7,650,000
정회원회비	440,000	제수당	750,000
후원회원회비	7,500,000	보험부담금	505,680
특별회비	190,000	업무추진비	250,000
후원금	9,227,514	기관운영비	100,000
후원금	9,227,514	직책보조비	30,000
일반 후원금	1,227,514	회의비	120,000
특별 후원금	8,000,000	운영비	717,390
잡수입	230,765	여비	149,400
잡수입	230,765	수용비	162,990
예금이자	1,765	공공요금	273,590
기타 잡수입	229,000	차량비	112,410
		연료비	19,000
		사업비	10,755,489
		일반사업비	10,755,489
		상담사업	61,500
		대안가정지원	1,690,140
		출판홍보사업	818,100
		그림참가금조성비	8,185,749
		상환금	200,000
		부채상환금	200,000
		원금상환금	200,000
		잡지출	2,900
		잡지출	2,900
		잡지출	2,900
총계	20,388,279	총계	20,831,459
3/4분기 이월금	742,917	잔액	299,737
합계	21,131,196	합계	21,131,196

♣ 회비 및 후원 관련 안내

- 대안가정운동본부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로로 회비 및 후원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금융결제원에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실제 입금하신 날짜와 차이가 있습니다. (약 5일 소요)
- 회비 및 후원금은 가능한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대구은행 계좌가 있으신 경우, 계좌를 알려주시면 사무국에서 자동이체 신청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이마트 영수증으로 후원하기

이마트

이마트 영수증으로 대안가정운동본부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금액의 0.5%가 후원금으로 적립됩니다.  
 고객만족센터나 무인적립기에서 대안가정운동본부를 확인하시고  
 아래 번호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월배점 168번                      만촌점 97번  
 성서점 146번                      칠성점 94번  
 반야월점 52번

이마트에서 즐겁게 쇼핑하신 후에는 '영수증 후원' 잊지마세요!  
 사무국으로 영수증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전국 어느 지점 영수증이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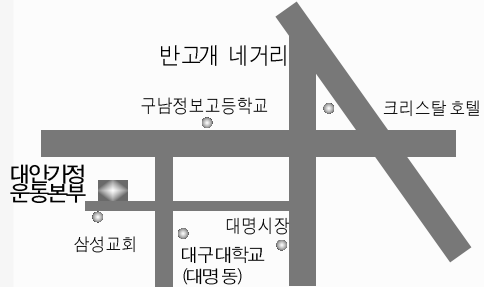
## 후원안내

꼭 대안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공감하되 당장 실천할 수 없는 분들은 대안가정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대구은행 : 068-05-005600-9  
 농협 : 718-01-176941  
 국민은행 : 602-01-0688-119  
 조흥은행 : 801-01-276520

(대구은행의 경우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사무실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타은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안가정운동본부 약도



버스노선 : 일반 202, 609, 618, 650, 836  
 좌석 706